

그 카페에서, 연극이 끝나고 난 뒤

연극 〈문학을 들려주다〉의 관객, 배우, 연출자, 극장주가 만나 대화로 쓴 리뷰



연극이 끝나고 난 뒤 객석에 불이 켜지면, 관객들은 한여름 밤의 꿈을 꾼 듯 저마다의 감흥을 안고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간다. 마음에 깊은 자국을 남긴 공연을 본 관객은 며칠이고 그 내용을 문득 떠올리기도 하고,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감상에 젖은 리뷰를 게시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그 배우와 술 한 잔 했으면 좋겠네.’ 혹은, ‘그런 장면을 만든 연출자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공연을 준비한 배우와 연출자 역시 마찬가지다. ‘내가 표현한 감정이 잘 전달됐을까?’ 혹은, ‘관객은 이런 연출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문화예술〉이 중매에 나섰다. 평론가가 밀실에서 펼치는 사색이 아닌, 관객, 배우, 연출자, 극장주가 만나 대화로 함께 쓰는 새로운 리뷰.

글 홍상희 편집부 | 사진 박정훈



특이한

연극이다. 연극 〈문학을 들려주다〉는 그 형식도, 무대가 되는 장소도 파격적이다. 배우들이 소설을 그대로 외워 연기하는 〈문학을 들려주다〉의 무대는 극장이 아닌 카페다. 객석이 곧 무대이며, 무대가 객석인 이 공연이야말로 그 자체로 ‘소통’이 아닌가. 홍대 앞 골목의 ‘카페팩토리’를 찾은 그날은 마침 〈문학을 들려주다〉의 마지막 공연일이었다.

오후 7시 30분, 카페는 작은 변신을 시작한다. 홀 가운데를 비우고 테이블과 의자를 가장자리에 배치하는 작업이다. 스태프들은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랴, 음악을 체크하랴, 동선을 확인하랴 분주하다. 연극을 보려는 사람들이 하나둘 도착해 자리

를 잡는다. ‘오후 8시부터 〈문학을 들려주다〉 공연이 시작됩니다.’ 카페 앞에 걸린 안내문에, 차를 마시러 온 손님들은 돌아 나가기도 하고 의아한 얼굴로 들어와 앉기도 한다. 곧 카페 안은 40여 명의 관객으로 가득 차고, 무대로 변한 홀 중앙에는 담요 한 장이 깔린다.

오후 8시, 빛소리가 작은 카페 안을 가득 메운다. 차게 들려오던 음악이 멈추더니 갑자기 시원한 빛소리와 천둥소리로 바뀐다. 갑자기 관객 사이에서 한 여자가 일어나 맨발로 뛰어 나온다. 관객의 시선이 모이자, 여자가 입을 연다. “그녀는 방금 밖에서 돌아왔다….” 맨발의 여인은 배우였고, 그녀가 들려주는 작품은 유도라 웰티의 단편소설 〈신문지〉다. 그 순간 카페의 ‘손님’들은 연극의 ‘관객’

이 된다. 20여 분간, 배우는 소설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지문을 암송하고, 대사도 하며 혼자서 극을 이끈다. 계속되는 빗소리와 중간 중간 흘러나오는 기괴한 배경음악은 훌륭한 장치가 된다. 두 번째 극 오상원의 <유예>와 세 번째 극 바바라 캘러한의 <바람개비의 꿈> 역시 일인극으로 진행된다. 배우들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 관객의 옆으로, 뒤로 다가가서 끊임없이 대사를 읊는다. 관객 사이로 들어와 연기하는 모습에 관객은 마치 하나의 소품이 된 것 같다. 객석이 아닌 무대 위에 배우와 함께 서 있다는 느낌이 신선히 다가온다.

담요와 군복, 바람개비 등의 몇 가지 소도구뿐, 조명도 변변찮고 무대장치도 없는 이 연극은 예상보다 훨씬 재미있었다. 휴대폰을 꺼달라는 이야기도, 사진촬영을 금한다는 안내멘트도 없었다. 연기를 했다기보다는, 그저 책을 외워서 들려주며 지문에 맞추어 몸을 움직인 듯한 배우들이 쏟아낸 문어체 대사는 듣기에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책을 읽은 것보다 풍족한 느낌을 주었다. 배우들은 카운터를 들락거리기도 하고 객석 사이를 돌아다니기도 한다. 사실 의자와 테이블을 치워 만든 무대라고 생각했던 것은 무대 안의 ‘빈 공간’일 뿐, 진짜 무대는 관객들이 앉아 있는 공간을 포함한 카페 전체이다. 결국 내가 앉아 있는 곳이 무대이며, 연기를 하고 있는 배우 뒤편으로 보이는 또 다른 관객은 무대장치인 셈이다.

마지막 작품이 끝나고 보니 어느새 두 시간이 훌쩍 지나가, 10시가 되어서야 대화의 시간을 마련할 수 있었다. 시간에 쫓겨 돌아간 몇 명을 제외한



관객들과 출연진, 연출가와 카페의 주인까지 20여 명이 동그랗게 둘러앉아, 유명 감독을 모신 영화제에서나 보던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문화예술> 편집부도 이 자리에서는 관객의 한 사람이 되어 대화에 참여했다. 대화 초반, 서먹하게 앉아 있던 관객들은 조금씩 배우나 연출자를 향해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저마다의 감상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공연 중의 열기는 간 데 없이 수줍게 웃고만 있던 배우들도 말문이 터지자 작은 카페 안의 공기는 금세 따뜻해졌다. 이 공연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냐는 질문에, 연출자 이범 씨가 먼저 입을 열었다. 뭐 대수로울 것 있겠냐는 투의 소탈하고 장난스런 말투가 오히려 그의 열정을 드러내는 듯했다.

이범(연출자) 사실 과정은 단순했어요. 연극을 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었어요. 어느 날 술자리에서 이 친구(기획자 문효원)한테 아이디어를 내고, 이 친구가 서울문화재단에 지원서를 냈어요. 연말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돈 받았어요.” “그래, 하자.” 이렇게 됐어요. (웃음) 어떻게 문학을 들려주는 극을 하게 되었느냐고 많이들 물으시는데, 자기가 재미있게 읽은 소설이나 시 같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저희는 연극의 형식을 가지고 작품 그대로를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극 안에 있는 기본정신은 ‘소개해주고 싶다’예요. 실제로 저희가 3월부터 했던 것들이 저희가 재미있게 본 소설들이었어요. 굳이

카페라는 공간을 생각했던 건, 간단히 말하면 장소를 빌릴 만한 돈은 없고 친구(이리카페 주인 이주용)가 이리카페를 하고 있어서고요. (웃음) 사실 ‘카페라는 곳이 연극공간의 어떤 대안이 돼야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그는 예전부터 이 같은 연극을 꼭 한번 해보리라고 마음먹었다고 한다. “의도적으로 무대를 상상하며 쓰인 희곡은 연출가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연출가를 방해하기도 한다.”라는 러시아 연출가 카마 긴 카스의 말처럼, 원작의 희곡화 역시 연출가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제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러시아에서는 이미 긴카스가 도스토옙스키나 안톤 체호프의 작품을 ‘들려줌’으로써 호평을 받았다고 한다. 비록 작은 카페에서의 공연으로 시작하지만 연출 의도를 설명하는 그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묻어났다.

변규빈(관객) 재미있는 글을 소개해주듯이 한다고 하셨는데, 전 과연 배우들도 이 소설이나 연극 자체의 대사가 재미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이민지(배우) 3월부터 6월까지 매달 다른 작품들을 하면서 좋아하는 것도 있었고 아닌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끼리 얘기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작품의 재미나 매력에 대해서 더 이해하고, 그걸 표현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사실 그런 과정이 재미있었던 거지,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뭘 보여줘야겠다고 작정한 건 아니었어요. 소설을 읽었을 때 각자 느끼는 것이 다르잖아요.



관객 최춘범

받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이혜정(관객) 소설을 통째로 외우는 걸 텐데,
대사는 어떻게 다 외우셨어요?
이민지(배우) 6월 공연을 한 번 올리고 나서
저희 셋이서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아,
이젠 정말 세상의 무엇이라도 다 외울 수 있을 것
같다.' (웃음)
장재형(관객) 혹시 공연을 해오시면서 대사를
잊어버리거나, 이상한 관객 때문에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사건 같은 건 없었나요?



배우 이민지

이번 연극도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건 이
작품의 이런 점이야' 하고 심어드리는 방향으로
진행될까봐 초반에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최춘범(관객) 이제까지 네 작품을 하셨는데
배우들은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노승우(배우) 첫 작품이었던 <새장 속의
나비>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재미있는 작품인데
책을 읽었을 때의 재미를 다 전달해드리지
못했다는 책임감과 후회도 있고요. 그래서 더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어떤 관객 제가 궁금했던 것 중 하나는,
카페라는 공간에서는 시선이 사방팔방에서 오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했어요. 관객이
바로 옆에서 쳐다보고 있잖아요.

이민지(배우) 무대라는 공간 자체가 무너진
것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했죠. 또 관객들의 호응이나 반응
같은 게 훨씬 직접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처음엔
부담이 컸는데, 조금 지나면서부터는 관객이
옆에서 보고 느끼고, 배우들은 관객들의 에너지를

이 질문에 배우들과 스태프들은 서로 마주보며 웃
느라 잠시 대화가 중단될 정도였다. 모든 스태프들
이 노골적으로 이미 얼굴이 붉어진 배우 윤여영 씨
를 바라보았다. 짐짓 시선을 피하며 웃던 윤여영 씨
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입을 열었다.

윤여영(배우) 제가… 유독 대사를 자꾸
까먹어요. 보통은 옆에서 도와주는데, 이번 공연
같은 경우는 혼자 해야 되잖아요. 저보고 다들

그랬어요. (비장하게)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알아서 해라!' 이번 공연은 정말 알아서 한
거죠. 사실 재미있는 부분에서는 관객이 웃어주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저는 관객이 웃으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한바탕 웃고나면 대사를
까먹어요. (웃음)

이민지(배우) 자잘한 실수들 있잖아요.
관객들은 막상 잘 모르시는데 저희끼리 화들짝
놀라는 거. 별 거 아니어도 저희끼리는 약속이
안 된 거니까 놀라잖아요. 그러면 순서를 약간
돌아갔다가 다시 한다든가. 항상 그런 것들 때문에
긴장을 했어요.

이범(연출자) 작년 여름에 제가 카페에서
공연하면서 연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전 공연을
하는 도중에 그만들까라는 생각을 여섯 번 넘게
했어요. 대사를 까먹어서 단락이 한 서너 개가
몽창 날아갔고요. 연기를 하다가 관객하고 눈이
마주치면 바로 그 대사는 없어져요. (웃음) 그리고
관객들 표정이 다 보이거든요. 조는 사람, 관심
없는 사람, 다시 책으로 눈 돌리는 사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배우들이 참 아마추어 같고
왜 이렇게 표현력이 없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연출자 이범



배우 윤여영

제 경험에 비추어보면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가장 경이로울 때가, 몇 단락을 날리고 대사를
하다가 다시 앞으로 올 때도 있거든요. 날렸던
부분은 차근차근 다 끝내고 아까 했던 부분은
뛰어넘고… 모르셨겠지만 오늘도 그런 게
있었어요. (웃음)

대화가 진행되는 도중 한 남자가 카페로 들어섰다. '카페팩토리'를 운영하는 김우성 씨다. 사실 공간을 빌려준 '카페팩토리'와 '이리카페'가 없었다면 <문학을 들려주다>는 애초에 기획 자체가 힘들었을 것이다. 늘 손님이 들락거리는 저녁 시간에 선뜻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준 카페 운영자들은 이 공연의 숨은 공로자다.

김우성(카페주인) 처음 이 프로젝트를 제안
받았을 땐 제가 좋아하는 레이몬드 카버의 소설을
한다기에 무조건 하자고 했어요. 결국 저작권
문제로 카버는 못하게 됐지만요. (웃음) 다들
좋아하시고 너무너무 신선한 이런 기회를 저희가

가졌다던 것 자체로 풍족한 시간이었어요.
넉 달로 끝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른
것들도 기대하고 있지요. 앞으로도 계속 창작
프로그램을 관객 분들과 함께 만들어서 가을,
혹은 내년에 또 이런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이주용(카페주인) 저희 이리카페도

카페팩토리처럼 많은 행사들이 모이는 카페
중의 하나인데, 공간을 가지고 여러 공연들이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음악,
미술, 연극이 서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장르에서 영향을 받아 그것을
소화해서 자기 작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연극을 통해서 저도 도움도 많이 받고
영향도 많이 받았어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들이
좋아보였거든요. 배우 분들도 다 신인이시고,

여기 연출하는 분도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 노력하셨어요. 저도 인지도 있는 화가는
아니지만 미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무언가 시작을
한다는 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문효원(기획자) 사실 저 벽면에 있는 그림을
그려주신 분이 이리카페 사장님이세요. 매달
그림이 달라졌거든요.

장재형(관객) 저 작품 이름이 뭔가요?

이주용(카페주인) 이름은 저도 정한 것이 없고요,
제가 한 달에 세 편의 시나리오를 받았거든요.
그걸 읽고 제 나름대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일단
극에 충실한 것을 첫번째 조건으로 삼고, 두번째는

이리카페 주인 이주용



어떻게 하면 극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그 안에
내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해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은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시도였고
앞으로 작업을 할 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문학을 들려주다>의 은근한 마니아층도 형성되
어 있었다. 3월부터 매달 빠지지 않고 공연을 보
러 온 관객 몇 명이 마지막 공연을 축하하는 마음
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다. 연극에 관련된 일을 하
고 있는 사람도 있고, 순수한 관심만으로 찾아와
팬이 되었다는 사람도 있었다. 그동안 공연이 끝난
후에는 뒤풀이 자리에도 함께 연극에 대한 감
상과 의견을 나누었다니, 그들 역시 <문학을 들려
주다>의 관객이자 함께 연극을 만들어나가는 스태
프인 셈이다.

안영주(관객) 저는 3월부터 모든 공연을
봐왔는데요, 3월 같은 경우에는 배우 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차를 마시거나
하는 상황과 공간이 신선했어요. 그리고 4월은
정말 느긋한 분위기 속에서도 극의 전개는
3월보다 약간 빨랐다고 생각해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로 한 <개구리군, 도시를 구하다>가
개인적으로는 기억에 남고요. (웃음) 5월에는
소규모 인원으로도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했다는
점에서 좋았고요. 오늘은 세 작품의 공통적인
주제가 죽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이나 개인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었어요. 그동안

카페라는 공간에서 마음 편하게 연극에 관련된



카페팩토리 주인 김우성

다른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최춘범(관객)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왔는데
정말 인상 깊었어요. 정말 문학을 들려주더라고요.
출연하신 배우들도 경험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풋풋한 연기가 신선했을 거예요.
그리고 말로 문학을 읽어주는 게
저는 되게 편하게 느껴졌어요. 극적인 것 없이
편안하게, 뭐 눈 감고 봐도 괜찮을 만한 그런
느낌이어서 좋았습니다. 문학을 들려준다는 테마

자체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좋은 것 같아요.
처음이기 때문에 한계를 인정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요. 굳이 말하자면, 풋풋하고 어떻게
보면 무미건조한 듯한 것들이 문학을 들려준다는
컨셉트와 맞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어떤 관객 공연을 여러 번 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저는 오늘 처음 왔는데… 사실
예전에 소극장이나 대극장 말고 연극이 다른
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면서
카페가 대안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끌렸어요. 문학을
극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텍스트북이 있으면
오디오북이 있고 이건 말하자면 플레이북이



어떤 관객

되는데, 어떻게 구현될까 궁금해서 오려고 생각을 쭉 해왔어요. 그런데 학생이다 보니까 결국 방학이 돼서 마지막 공연을 보러 왔네요.

문효원(기획자) 플레이북이라는 말씀이 인상에 남네요. 오늘 직접 보니 어떠셨나요? 스스로 대안이라고 생각했던 면들이 있었을 텐데요.

어떤 관객 텍스트를 쓴 사람은 심리학자인 어감을 그냥 글로 기술했을 텐데, 이걸 어떻게 연극적으로 표현했을까 궁금했어요. 솔직히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 봤고요, 아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변규빈(관객) 저는 연극을 하면 배우랑 관객이랑 서로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아무 것도 안 마시는데도 배우가 컵을 들어 마시는 시늉을 하면, 뜨겁다든가 차갑다는 암묵적인 관객들과의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 공연은 관객들에게 약속을 너무 많이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허공을 보며 대화하면 갑자기 사람이 새로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에 훈련되지 않은 관객들은 의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제목이 <문학을 들려주다>잖아요. 관객을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작품을 얘기했을 텐데, 가만히 듣기에는 너무나 볼거리가 많지 않나….

아무래도 처음 보는 사람들은 시야가 조금 분산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 보고 있는 중에 배우 뒤에서 누가 음료수를 마시고 있다든지 말이에요.

그게 이 공연의 재미이기도 하지만요. 이범(연출자) 사실 시작할 땐 아무것도 규정할 수 없었어요. 첫 공연 땐 정말로 손을 이렇게 텔덜 떨면서 봤어요. 다음에 또 이런

공연을 하게 된다면 지금 말씀해주신 의견들을 참조해야겠습니다.

홍상희(관객) 보면서 느낀 건데, 책은 대충 보다가도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연극은 보다가도 잠깐 집중력을 놓으면 맥락을 잊고 그 다음부터는 끝까지 계속 집중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문 중심으로 진행되니 그게 힘들었어요. 그런 점에서 고민이나 대안에 대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범(연출자) 제가 처음에 이론 공부할 때 '3초'라는 말을 들었어요. 연극을 보면 한 편에 있는 것을 다 흡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순간에 내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딱 한 순간이죠. 그 3초를 느끼게 할 수 있다면 문학을 들려주는 연극공연을 하든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물론 읽어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공연할 땐 결국 변질될 수도 있다는 걸 느끼기도 했어요. 실제로 공연에 올린 작품의 작가 분이 오셔서 얘기를 나누어본 적도 있었는데, 그 분은 '애초에 내가 원한 것은

이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같은 내용이지만 공연과 원작이 주는 느낌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간 시간을 좀 두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영(관객) 이 공연이 무대장치가 많이 배제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작품 선정인 것 같아요. 공연을 보면서 이게 일반 연극이나 영화하고 다르면서도 장점인 것이 뭘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아무 장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전 세번째 작품이 가장 좋았는데, 이 연극의 낯선 형식에 점점 적응이 되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세번째 작품이 심리 묘사가 많아서 더 와닿은 것 같아요. 일반 연극이나 영화에서는 냄새나 손으로 느끼는 느낌을 보여주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공연은 지문에 있는 그런 감각적인 묘사를 대사로 해주니까 상상력을 자극하더라고요. 텍스트를 그대로 읽어주면서 그런 묘사들을 바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이 극에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아닐까요.

이범(연출자) 말씀을 정말 잘 해주셨네요. 저번 공연을 보고나서도 어떤 조명 디자이너가 색깔을 나타내는 문장이 귀에 많이 꽂힌다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건 아니었어요. 사실 이번 마지막 공연에서는 원래 시를 읽으려고 했었는데… 말씀하신 그런 걸 감안할 수 있는 면밀한 작품 선정은 아니었지요. (웃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좋은 공연과 편안한 대화의 시간은 어느덧 자정을 향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다. 첫 시도였기에 조금은 거칠고 어색할지라도 풋풋함과 열정이 살아 있는 공연 <문학을 들려주다>처럼, 갑작스레 마련된 자리에서 낯선 이들끼리 나누는 대화는 중심을 잊고 이리저리 흘러버리기도 했지만 솔직하고 편안한 이야기들로 채워졌다. 이 이야기들 속에서 배우와 관객은 무대와 객석이라는 경계를 넘어 서로에게 한걸음 다가가고 있었다. 마치 인쇄된 책 안에서 잡자고 있던 활자가, 카페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얻고 깨어나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온 것처럼 말이다.

2007년 6월 28일 밤 카페팩토리에서





orange screening project 2007

date

[1 JUNE - 30 AUGUST 2007]

venue

[CAFE VIM]

[YR CAFE]

[CAFE FACTORY]

lecture and symposium

[22 OCTOBER 2007]

[LADY GALIA DIMITROVA]

[TOT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YOONSUN SHIN / UMA@PREPARATOR.ORG / 011-9147-8158]

* artist & art works

[DANIELA KOSTOVA]

[ADELINA POPNEDELEVA & MICHEL BECK]

[KAREN STOYANOV]

[NA PANDOVA & TODOR KAHASTOYANOV]

* support

[CAFE VIM]

[YR CAFE]

[CAFE FACTORY]

co-organizer

[SPACED]

[INTER]

[PARAT]